조재빈 구성원변호사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TEL.
02-3479-2490

MAIL.
jaebin.cho@barunlaw.com

구성원 소개

조재빈 변호사는 반부패, 기업형사, 금융경제범죄, 금융감독원 제재심 및 금융위원회 자조심, 감리위, 증선위, 금융위, 자금세탁방지(AML), 건설·토목 관련 분쟁, 기업자문, M&A 등 금융투자 분야 등 다방면의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22년 9월 1일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한 이래 수임한 거의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임한 거의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검찰 근무 23년 중 18년을 특별수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검사(특수2부), 부부장검사(특수3부), 부장검사(특수4부)를 지냈으며,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 감찰본부, BBK 특별검사팀, 서울고검 검사 수사 특임검사팀,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국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등 반부패 금융 분야 특별수사팀에 파견 및 발탁되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로는 △ 홍콩 H지수 ELS/ELT 불완전 판매 관련 감독원에서 중징계 통보받은 시중은행, 제재심 단계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 감경 및 기관 · 인적제재 경징계 감경 △ '중징계' 통보받은 모 증권사 대표이사를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경징계'로 감경 △ 수백억 원대 회계분식으로 금융위로부터 고발당한 전 상장사 대표이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 언론사 사주이자 건설회사 회장의 148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모 금융지주 회장 인척의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관련 은행 여신심사본부장의 특경법위반(배임)사건, 구속영장 기각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로 수사받은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 전부 불입건 △ E모터스의 S자동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1년간 출국금지상태로 15회 조사받은 회계법인 대표, 불입건 종결 △ 테라 루나사태 관련 임원인 프로그래머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2억 6,000만 원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구속영장 2회 기각 △ S그룹의 제빵기사 조달업체 전무, 상무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입건된 임직원 27명 불기소 △ 전 특별검사의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당한 전 금융지주 회장, 불입건 종결 △ 수백억 원대 용역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간부들, 불입건 종결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경법위반(공갈) 등으로 송치된 도시개발업자, 검찰 보완수사 통해 혐의없음 종결 △ S전자로부터 7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당한 전 직원, 구속영장 기각 △ 상장사 오너의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경찰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하고 언론보도되었음에도 1년간 수사후 불구속 송치(영장신청 포기) △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의율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업가, 구속영장 2회 기각 △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유가증권 상장회사 대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 70억 원 특경법위반(사기) 및 20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사건의 피의자들,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쳐 모두 혐의없음 종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송치된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혐의없음 종결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참고자료 통보를 받은 기업인, 검찰 반부패부에서 불입건 △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임직원 4명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사건, 혐의없음 종결 △ 대학교수의 청탁금지법위반죄 기소의견 송치사건,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공소권없음) 종결 △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로 기소된 회계사, 절도교사죄로 공소장변경하고 벌금형 구형 후 벌금형 선고되도록 하여 자격유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 송치된 대학원생,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 제약회사 대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 공시위반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 상장사, 벌점 14.5점으로 상장유지 방어 △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대학생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고소대리하여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 기업인 구속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자문 기업으로는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식품 회사, 의류 회사, 디자인 회사, 디지털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등, 부동산 투자회사, 포털기업, PEF, IT업체, 플랜트 전문 기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업무사례

제품 이용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를 대리해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감독원 제재심에서 2,9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시중은행을 대리해 금융위 단계에서 2,000억 원을 감경시킨 사례

전자주권 장외 양도를 빙자해 15억 원을 편취한 투자조합 관계자 3명의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항소심에서 감형(벌금 200만 원→90만 원)을 이끌어내 재개발조합장의 지위를 지켜낸 사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압수수색 및 장기간 수사를 받은 상장사 오너를 대리해 불구속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보이스피싱 총책 연루 의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무관함 및 테더코인 거래의 실질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도시개발사업 동업자의 고소로 업무방해·공동강요·공갈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단계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대응]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의 부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의심받아 체포된 사건에서 테더코인 거래 경위 입증을 통해 조직과의 무관성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변론한 사례

조재빈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 안보포럼 위원,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제심의위원 겸 옴부즈만,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 기획위원회 위원, 디지털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 팀장,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장, 상장폐지 대응 TF팀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1989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 전공)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11	미국 DUKE Law School 졸업 (형사법 전공, LL.M.)
2016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건설 토목비리 분야)

경력

2000 ~ 2002	부산지검 검사
2002 ~ 2003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특수전담)
2003 ~ 2006	서울중앙지검 검사(특수2부 근무)
2006 ~ 2008	청주지검 검사(특수전담)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특별감찰본부 파견, BBK 특별검사팀 파견]
2008 ~ 2010	법무부 기획검사
2010 ~ 2013	서울서부지검 검사(특수전담)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파견, 서울고검 검사비리 특임검사팀 파견]
2013 ~ 20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2014 ~ 2015	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2015 ~ 2016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특수, 공안 전담)
2016 ~ 2017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2017 ~ 2018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검찰개혁추진단)
2018 ~ 2019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2019 ~ 202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행정소송]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중앙징계위 감봉3월 후 소청심사위에서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규제대응]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 예정 통보를 받은 시중은행을 대리해 과징금 감경과 기관경고·임직원 견책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수사통보된 전 건설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동업하던 회사를 탈취하고도 피해를 변상하지 않던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사례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중징계 통보된 증권사 대표이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된 의뢰인에 대해 중앙징계위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여성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뢰인을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토록 한 사례

[기업형사]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비리 관련, 8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압수수색을 당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 전원의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기관 상대 공사대금 148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7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20억 원대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임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고소대리하여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 기업인을 구속시킨 사례

[금융형사] 증선위에서 600억 원대 '회계분식' 혐의로 고발된 상장회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되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임원들을 모두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2020 ~ 2021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특수전담 지휘)
2021 ~ 2022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2022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2022 ~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옴부즈만 규제심의위원
2022 ~ 현재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 혁신분과)
2023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23 ~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 안보 포럼 위원
2023 ~ 현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2024 ~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2024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5 ~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 위원
2026 ~ 현재	이에이트(주) 사외이사
2026 ~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상임이사
2026 ~ 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비상임이사
2022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 홍콩 H지수 ELS/ELT 불완전 판매 관련 감독원에서 중징계 통보받은 시중은행, 제재심 단계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 감경 및 기관 · 인적제재 경징계로 감경
- 자본시장법상 사후 이익제공 위반으로 '문책적 경고(중징계)' 통보를 받은 증권사 대표이사 사건을 변론해 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주의적 경고(경징계)'로 감경
- 600억 원대 회계분식에 연루된 전 상장사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감리위, 증선위,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종 혐의없음 종결
- 금융기관을 상대로 148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와 13억 원대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언론사 사주이자 건설회사 회장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기각
- 2억 6,000만 원의 특경법위반(수재등) 혐의를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2회 기각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관리한 프로그래머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기각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관련 사건을 변론하여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한 사례

[노동형사] A사의 노조탈퇴강요 사건 기소범위 최소화 및 영장재청구 방어 성공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형사]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금융자문]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 15점 부과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상장기업 대리해 상장유지시킨 사례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재건축 재개발

반부패금융경제범죄

- 모 금융지주 회장, 회장의 처남(구속), 부행장(구속), 지점장(구속) 등이 공모하여,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을 실행해 모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여신심사본부장 사건을 수임해 구속영장 기각
- E모터스의 S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계사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
- 외국정부에 납품되는 태블릿패키지 중 외국업체가 납품하는 액세서리 가격이 높게 책정되도록 해 약 70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S전자가 전현직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임해 구속영장 모두 기각
- 압수수색을 당한 모 금융지주 전 회장 사건을 수임해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
- 20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하면서 발주처가 UP해 준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업체 임원들 사건을 수임해 수사에 협조하고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
- 상장사 오너의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경찰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하고 언론보도 되었음에도 1년간 수사후 불구속 송치(영장신청 포기)
- 상표권을 넘기지 않고 70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전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경찰단계에서 70억 원 사기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0억 원 배임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전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이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고발되어 그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임해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상장사 C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공시위반 사건을 수임해 벌점 14.5점을 받아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변론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2년간 전 재산과 지인들의 재산 합계 100억 원을 편취당한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인 여성기업인을 구속시킨 사례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방해로 수사받은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모두 불입건되도록 변론한 사례
- 동업하던 회사를 탈취하고도 피해를 변상하지 않던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참고자료 통보를 받은 기업인, 검찰 반부패부에서 불입건
- 전자주권 장외 양도를 빙자해 15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임해 1개월 만에 피의자 3명 불구속 구공판되도록 변론

일반형사

- 제품 이용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수임해 유족과 직접 협상하고 4일만에 합의에 도달하여 브랜드 이미지 타격 없이 사건을 조용히 종결
-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의율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업가, 구속영장 2회 기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송치된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사건, 혐의없음 종결
- 식품관련 그룹 계열사 임직원 39명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수임하여 전무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27명은 불기소되도록 변론
-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 사건을 수임해 검찰이 벌금형이 있는 절도교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후 벌금형을 구형하도록 한 다음 재판부가 벌금형 선고하도록 하여 회계사 자격을 유지시킨 사례
-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교수 사건을 수임해 골프채가 실제 전달된 시기가 2년 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공소권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교제당시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원생 사건을 수임해 고소인의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사진을 서로 교환한 증거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 사건을 수임해 합의되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용서한 정황 등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도록 변론
- L그룹 총수일가의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 수사하여 기소
-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 수사로 M기업 회장의 48억 횡령사건, S기업, M기업 임직원 등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여 기소
- H사 전무가 부품제조업체 C의 상무 및 핵심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 수사하여 기소
- IT업체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E사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로비 등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D사, E사, H사 등 국내 대형 제강사 4곳이 7년간 39회 철스크랩 구매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담합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H사, P사, L사, S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재건축 재개발

- 도시정비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재개발조합장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의 감형을 이끌어 내 재개발조합장의 지위를 지켜내도록 변론

가상자산 형사대응

산업기술유출대응

금융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 부동산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으로 2억 원 배임수재, 50억 원 배임수재미수 및 128억 원 배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기각된 변호사 사건을 수임하여 1억 원의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영장재청구 없이 불구속 구공판되도록 변론
- 건설회사인 S사가 조합장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10억 원을 공여하는 등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 및 그 수사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 의원인 조합 이사들이 구의회 의장선거 매표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 모두 기소
-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정비업체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8억 원을 공여하고, 구청장이 그 중 3억 원을 수수한 oo뉴타운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건설 대표, 상무보가 B호텔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시행사 대표는 법인 자금 21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oo지역주택조합 수사로 조합장과 철거업체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입법로비하고 비서관에게 2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사실 및 보좌관이 해당 지역 구청장 경선지지 및 선거비용 명목으로 2억 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수사하여 기소
- 용산 oo지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장 3억 원, 조합장 등 3명의 각 1억 원대 특가법(뇌물) 위반을 수사하여 기소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영장제도와 수사활동(국외훈련검사 논문집), 법무연수원 (2012)
- 형법주해 10: 각칙(7), 박영사 (공저) (2023)